

# 향후 선거 없는 2년...정치지형 구조적 변곡점 예고

##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상〉진보·보수 반성·재정비 기회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전환의 드라마였다.

선거 결과는 외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민심의 이반과 보수 진영의 국지적 생환이라는 복합적인 메시지가 혼재된 '미완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지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함의는 향후 2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모두에게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를 줬다는 점이다.

대선, 총선, 지선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선거 사이클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를 향한 외부 지향적 동원 체제에서 벗어나 당내 권력 투쟁, 이념적 재편, 그리고 차기 대권을 향한 내부 헤게모니 장악에 집중하는 내부 지향적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 ◇민주당 지방 권력 '미완의 승리' 이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안정론을 앞세워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휩쓸며 지방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61.4%의 압도적 득표율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10표 차이로 꺾는 격차로 따돌리며 현정 사상 첫 여성 경기도지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인천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57.7%를 얻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45.3%)를 누르는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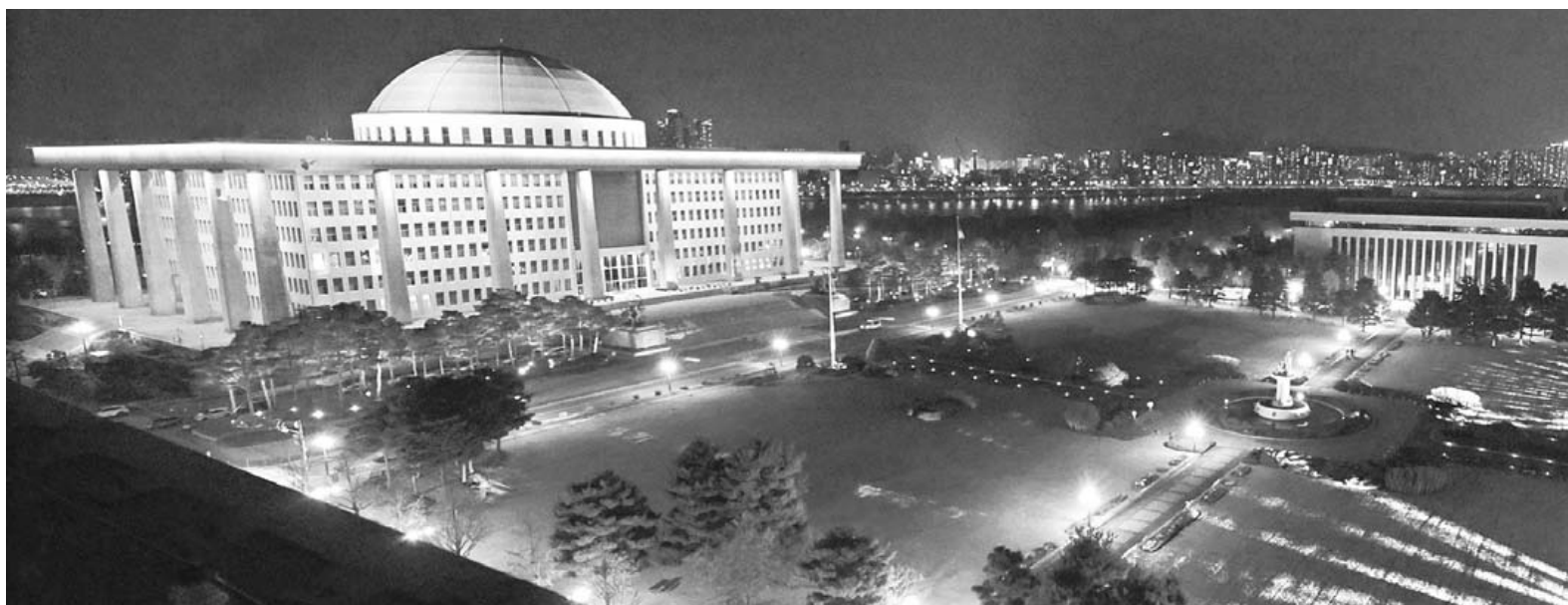
민주당의 승리는 전통적인 텃밭에 국한되지 않았다. 충청권(충북 신용환, 충남 박수현, 대전 허태정, 세종 조상호)을 전면 탈환했으며, 특히 보수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영남권에서 부산시장(전재수, 50.52%)과 울산시장(김상욱, 52.8%) 당선자를 배출했다.

### ◇출구조사 뒤집은 부동산 민심·강남 3구

그러나 전국적인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심장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였다.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발표된 지상과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51.4%를 득표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46.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됐으며, JTBC 예측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정 후보 53.5%, 오 후보 42.9%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며 양상은 급변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오 후보는 49.22%를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몰아닥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야간조명이 켜져 있다.

/광주매일신문DB

해 48.07%에 머문 정 후보를 1.15%p 차이로 따돌리며 서울시장 사상 최초의 5선 고지에 올랐다.

이러한 막판 대역전극의 이면에는 서울의 고질적인 부동산 민심과 구조화된 계층 투표의 메커니즘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정 후보가 강북 및 외곽 지역에서 선전했지만 오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만 무려 17만표를 더 얻으며 타 지역의 열세를 단숨에 상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불안감을 느낀 보수 성향 계층과 부동산 소유주들이 투표 막판 무서운 응집력을 발휘해 전략적 투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오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중앙당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당대표와 철저히 거리를 두며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털어내고 현역 프리미엄과 행정가로서의 인지도 만을 앞세우며 고도의 '탈(脫)여의도'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인 아닌 '오세훈'이라는 인물에 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국회의원 재보선...부산 북갑·평택을

민주당의 '미완의 승리'를 구조적으로 고찰하면 또 다른 요인은 주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전략적 패배다. 민주당은 총 14곳의 재보선

### 민주당, 지방 권력 탈환 성공했지만

### 심장부 서울시장 놓쳐 '미완의 승리'

### 오세훈, 고도의 '脫여의도 전략' 구사

### '강남 3구' 등 보수 성향 표심 결집

### 與 차기 당권 경쟁 일찌감치 본격화

### 정청래 vs 송영길 vs 김민석 '3파전'

지역 중 9곳에서 승리했으나, 반드시 사수해야 했던 핵심 경합지인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에서 보수 진영에 빼어난 일격을 당했다.

가장 상징적인 패배는 부산 북구갑에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 수석을 지낸 하정우를 전략공천하며 지역 내 첨단 산업 발전 공약을 앞세웠다.

당초 하 후보는 지역 내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 박민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분열된 3파전 구도의 반사 이익을 얻어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신인인 하 후보

의 잇따른 실언과 태도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하 후보는 41.2%를 얻는 데 그쳐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1.75%p 차이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는 민주당의 하향식 전략 공천이 지역 민심과 유리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경기 평택을 패배 역시 민주당에게 중대한 전략적 함의를 남긴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범야권 표심을 양분하는 바람에 개혁보수 노선을 내세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게 당선을 헌납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결과라는 당내 비판을 촉발했다.

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였던 '국힘 제로(0)' 달성에 실패하며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으며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 또한 짙은 먹구름에 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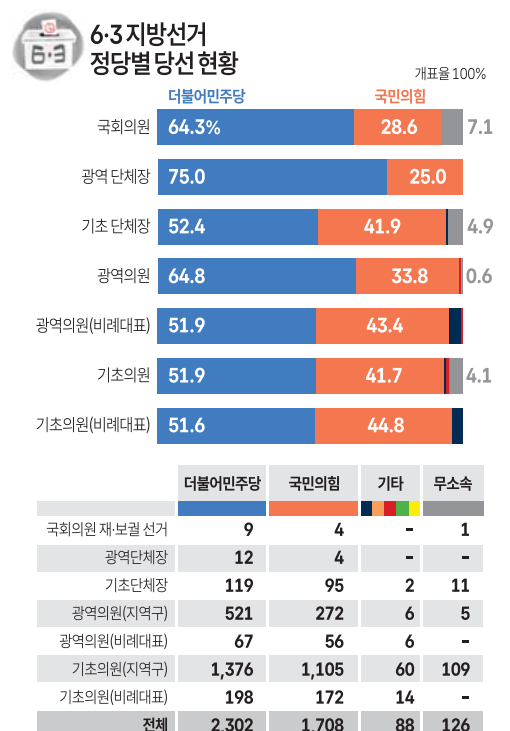
###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3파전' 압축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의 시선은 급격히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의 물과 조직을 세팅하는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당권 경쟁은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정치적 측근을 키워 생환한 송영길 전 대표, 통합형 리더십을 내세운 김민석 국무총리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전국을 중회무진 누볐다. 국회를 비우고 현장에 집중한 그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지원이었으나 정치권 내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전당대회 준비 및 권력당원 표심 다지기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 특유의 강경한 대어 투쟁 노선과 당원 중심주의는 강력한 코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성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그러나 서울, 부산 북갑, 평택을 등 상징적인 3대 격전지에서의 빠이픈 패배는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가장 큰 장애물로 부상했다.

인천 연수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원내로 생환한 송 전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정 대표를 향해 맹렬한 포문을 열어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송 전 대표의 비판은 철저하게 이번 선거의 전략적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유능한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실용 노선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도부가 영남 지역 등에서 이미 한계 효용이 다한 '내란 종식'과 같은 과거 지향적이고 이념적인 정체성 논쟁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적 오판이 대구나 경북 지역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친명계의 또 다른 핵심이자 현직 국무총리인 김민석의 등판은 전당대회의 판을 더욱 다층적으로 만든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축적한 안정감과 중랑감을 무기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김 총리 측은 과거 이해찬 총리가 당정 간의 조율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뒷받침했던 모델을 차용하며, 본인이 당대표가 될 경우 당정 일체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 상으로도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등 주자가 오차범위 내의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명계 내부의 권력 분화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명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6.06.05.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9일

강현 주식회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양길 75-8

청산인 홍 석 제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룠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육,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평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가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